

보도자료



배포일	2016. 7. 7.(목)	배포담당	홍보팀
담당부서	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목: 빅솔 김경한 회장 서울대 '선한 인재 장학금' 1억원 쾌척

- 식품의약품 기업인 빅솔 김경한(외교학 62-68, 73세) 회장이 서울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'선한 인재 장학금'에 1억원을 쾌척했다. 이로써 김경한 회장은 외교학과 50주년 기금을 포함해 서울대에 총 2억원을 기부했다.
- 이에 서울대는 7월 6일(수) 총장실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, 행사에는 성낙인 총장과 김경한 회장을 비롯해 김정환 학생처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"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계신 회장님의 이번 기금은 우리 학생들이 창의와 헌신,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는 선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소중한 활용하겠다"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김경한 대표는 "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만큼 우수한 인재양성이 중요하다"며 "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라고 우수하고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"며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.
- 1968년 비타민 제조사인 스위스 로쉬사의 대리점으로 시작한 빅솔은 식품첨가물 및 동물약품의 제조업체로 2003년 일본의 종합식품회사인 아지노모토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.
- 김경한 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, 서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, 태경 대표,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, 한국접착제 및 계면학회 회장 등을 역임, 현재 한국아지노모토 대표, (주)태경식품·빅솔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.
- 한편 서울대는 '선한 인재 장학금'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'만만한 기부'(매월 만명의 만원이 선한 인재를 만듭니다) 소액 모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. (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<http://www.snu.or.kr> 참조)